
17/06/04(주) 주일예배 / 제목 : 정직한 자가 받는 복(신 6:18~19) p.272

(18)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19)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 의 말씀과 같으니라

들어가는 말 /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오늘은 신명기 6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정직한 자가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 / 건강한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큰 부자는 못되더라도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먹혀 들어가는 사회가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언젠가부터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라는 인식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 증명하는 말들이 있는데 우리 국민 스스로에게 "당신은 정직하게 살 것인가?"라고 질문하면 응답자의 73% 이상이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오직 하면 1653년에 네덜란드 사람인 ‘하멜’도 그의 동료 35명과 함께 13년 동안 조선 땅에 억류 당하며 살면서 경험한 것들을 기록한 '하멜표류기'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인은 거짓말을 잘한다. 남을 속이면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잘한 일로 여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2013년 WHO 발표 OECD기준에서 사기범죄율 1위 국가입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이고 우리 민족의 문제라면 과거에 한국교회가 '금주, 금연' 운동을 했던 것처럼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기운동을 교회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짓과 위선이 난무하기 때문에 손봉호 전 총장은 말하기를 "한국 사회가 비도덕적이고 부정직한 사회가 된 것은 종교, 그중에서도 특히 기독교의 잘못이 크다"며 "그 부정직에 대해서는 물론 정치인, 언론인, 교육자들도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하나, 그 가운데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는 한국 사회에서 정신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고, 기독교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며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정직의 종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사회에 ‘정직’이라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 즉 기독교인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것이 모든 의식 있는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교회가 정직하면 곧 사회도 정직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직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찌보면 정직한 삶은 현대사회 속에서 스스로 족쇄를 차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셨던 십자가에 비하면 이 족쇄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정직하게 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왜 정직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직한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사26:7) 정직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시 25:8).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은 본래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정직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본론 / 사도행전 5장에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부가 섬기던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이 필요했을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을 팔았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기 집을 팔아서 혹은 자기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할 결단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런 기특한 생각을 가진 부부가 결국은 죽음을 당할 만큼 큰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팔아서 그 값을 다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팔아서 하나도 안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이들은 절반이라도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심판을 받은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약속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목적으로 팔았으면 그대로 드려야 옳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핀란드는 인구가 560만 명이고, GNP가 2만 7천불인 작은 나라지만 4년째 국가경쟁력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 나라는 버스나 전철을 탈 때 검표원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믿을 수 있으니까 검표원을 세우지 않고 인건비를 줄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 불시에 검문하면, 검문에 걸리는 사람은 관광을 온 외국인들이고, 핀란드 사람들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무도 없으니 슬그머니 들어갔다가 많이 걸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진짜 선진국이고,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아주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아는 다윗은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도 아닙니다. 그가 행한 일들을 보면 칭찬만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엄청난 죄를 깨달았고, 백성들 앞에 그런 자신을 부끄러워했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는 더더욱 큰 죄인임을 정직하게 회개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속이 썩는 것 같았지만, 회개하고 나니 그렇게 자유로워졌습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정직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정직, 곧 그 다윗의 정직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상 15:5) “이는 다윗이 헛 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사람입니다.

시편 51편 5절을 보면 (시 51:5)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가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변명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삼상 12:13)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회개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나단 선지자는 “왕이시여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고, 왕은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치시니까 이 아이가 심하게 앓다가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앓고 있는 이 아이를 위해서 다윗이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회개를 해도 철저히 회개하고, 진실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한 이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후에 아들 솔로몬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위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18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고 권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어떤 것일까요? 본문의 정직은 “야샤르” 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구약성경에 약 120회 나옵니다. 그래서 정직이란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 올바르게 진실하고 거리낌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삶을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다니엘은 ‘무슨 허물이나 약점이나 비방거리가 있는가?’ 를 살피는 악한 세력에게 흠 잡힐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릇됨도 허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을 보십시오.

(단 6:4)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은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다 아시고, 그 이면까지 꿰뚫어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고 옳은 것이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라” 는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불필요한 반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말로는 정직해야 한다고 말들을 하지만 사실은 정직하지 못한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직하십니까? 여러분은 정직이 곧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직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정직” 하게 살아야 할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직하게 살 때에 받을 “복” 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 이라는 말은 '잘되다, 성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좋아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가 받는 복이란 그가 하는 일이 막힘이 없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성도를 이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에 대하여 이기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19절) “네 대적을 몰수히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몰수히” 라는 말은 ‘전부 다, 완전히, 하나도 남기지 않고’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앞에서 정직한 성도를 위하여 그의 대적, 그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철저히 쫓아내시고 몰아내버리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면 “아름다운 땅을 얻을 것이라” 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이란 ‘번영, 이익’ 이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이익이 되고 번영케 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업인으로서 정직함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은 한국유리 창업자인 최태섭 장로입니다. 그는 대출 받은 돈을 1.4후퇴 때 은행에 갚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창구직원은 "이 난리 통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갚을 필요가 없다" 며 피난이나 가라고 합니다. 그 순간 시편 24편 3절과 4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시24:3-4) "여호와와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

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결국 최장로는 돈을 갚고 난 후에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제주도에서 만난 군사령관은 최장로의 정직함을 듣고 군부대에 절인 무를 납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공급했습니다. 이번에는 신선한 생선을 납품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역시 최선을 다해 생선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물량이 많아지자 원양어선을 구입하여 원양어업에 뛰어들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돈도 담보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업자금 용자를 신청하기 위해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불확실한 전쟁 상황에서 대출은 위험하다며 거절당합니다. 은행을 나오다 자신의 대출상황이 잘 정리되었는지 알아보려고 영수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은행직원이 외쳤습니다. "바로 당신이군요. 중공군이 서울에 들어오기 몇 시간 전에 빚을 갚은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은행가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당신을 은행장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은행장은 최태섭 장로를 알아보고 그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니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은 정직한 기업인의 모델입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대출사정을 듣고는 무담보로 2억을 융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최장로는 대출 받은 돈으로 원양어업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 한국 유리를 창업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정직한 자에게 구원의 손길을 펴십니다. 정직함이 인격을 살립니다. 정직이 자본이 됩니다. 정직이 사업을 진흥시킵니다. 정직해서 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정직하면 손해보는 것 같으나 결국은 형통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어떠합니까? 정직하면 손해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자신에게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고 정직하다는 것은 안전한 것이 못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고 정직했다가는 경쟁에서 밀리니 안전하게 살고 싶으면 적당히 거짓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정직하게 세금내고 정직하게 시험보고 정직하게 사업하면 정직한 사람만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정직이 설 자리가 없어지면 나라는 온통 거짓과 불신이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공화국이 되는 것입니다.

일 년 내내 뉴스에 나오는 것이 '게이트', '축소 은폐수사', '부정 비리', '로비 의혹' 등으로 도배가 되는 것입니다. 청문회 때에도 늘 거론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번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입니다. 이런 것들은 옷 파는 매장에서는 늘 이월상품 세일, 긴급 대 처분이 쓰여 있고, 구두점에는 업종변경 완전 정리가 일 년 내내 붙어 있습니다. 길거리 노점상에는 '완전 망했습니다' 가 쓰여 있고 거리의 가게를 보면 일 년 내내 '가격 파괴, 창고 대개방, 창고정리' 등이 쓰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직하지 못한 상행위들입니다.

정직이 경쟁력입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잠깐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익이 아닙니다. 결국 손해입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과 누가 거래하겠습니까? 속여 놓고 자신이 지혜 있고 상대는 멍청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속은 상대방이 멍청한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이 멍청한 것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거짓은 시간 지나면 다 들통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직이 경쟁력입니다.

미국에서 세탁소로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요. 거기서 마땅히 할 일을 찾지 못하자 지인들의 권유로 세탁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그로서는 세탁소를 때려치우고 싶은 순간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던 이전 모습과 비교하면 지금의 모습이 너무나 한심하고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탁을 하기 전에 맡겨진 세탁물을 살피던 그는 어느 옷의 안주머니에서 2천 7백 달러를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투덜거리며 말했습니다. "하는 일도 힘들고 자존심도 상하는데, 이제는 시험거리까지 생기는군."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그 세탁물의 주인이 오자 그 사람에게 버럭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왜 이런 것으로 나를 시험하는 거요?" 얼마 후 세탁물 주인은 이 사람을 다시 찾아와 자기 회사의 세탁 공장을 맡아 주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세탁물 주인은 유명 항공사의 부사장이었습니다. 남들은 공돈이라며 자기 것으로 삼을 일인데, 도리어 그 공돈 때문에 '잠시 시험에 빠질 뻔 했다' 며 화를 내는 그의 정직 때문에, 그는 현재 직원 700명을 고용한 대규모 세탁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들이 거저 그렇고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됩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복주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본인은 물론이고 후손도 강성해지는 복이 임합니다. 시편 112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 112:2)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정직한 자들은 단순히 물질을 유산으로 남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물려주었기에 그 후손들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후손이 강성하리라' 는 말씀은 후손들이 능력 있는 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디에 가도 능력으로 성공하는 자손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부모로부터 자손에게 흘러갑니다. 부모의 정직한 신앙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후손에게 복을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강성함을 얻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모두 보시고 아신다는 것을 인정하므로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만약 그가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면 그는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얼마나 정직하냐?' 하는 문제는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이냐?' 를 묻는 것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직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핵심 :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라.